

어린이법제관, 법을 배우며 그 소중함을 깨닫다!

- 법제처, 제17기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4일(금), 서울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토론 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축하 공연,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이예진 어린이는 “어린이법제관 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의 가치를 내게 안겨주었다. 법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법을 통해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라면서, “올해 참여하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분들도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콜릿 하나에도 첨가물의 기준을 정하고, 식품의 용기나 포장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례들은 법률이 생각보다 일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어린이 법제관은 지난 1년 동안의 입법체험활동, 참여, 토론으로 법이 우리의 생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 같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5학년도 기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에서 제18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내용, 선정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와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책임자	과 장	이진희	(044-200-6571)
		담당자	사무관	허남영	(044-200-658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